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비교연구*

Comparison of the Time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On-site Workers: Focused on the Domain of Food*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김 효 정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김 미 라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ochung Kim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eera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amount of the household work time related to food and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time accomplished by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on-site work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5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292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in Pusan and Kyungnam province,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y distributions, Cronbach's alpha,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SPSS/PC⁺.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oth married female home-based and on-site workers spent more time on household work related to food in a weekend than in a weekday, (2) in a weekday, occup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mount of time that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spent on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food household work, whereas age and occupation were significant for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3) on Saturday, the significant factors of the time spent on food household work were the number of family and occupation for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sex role attitude, existence of children of 6 years or under, and existence of elders/disability within the family for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and (4) on Sunday, for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the number of family, occupation, and the level of market good substitu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mount of time spent on food household work, and for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age, the number of family, occupation, sex role attitude, work hours on Sunday, and the level of market good substitution were significant.

주제어(Key Words): 식생활 가사노동시간(household work time related to food), 기혼여성 재택근무자(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기혼여성 직장근무자(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I. 서론

가사노동은 가정의 다양한 기능을 달성하고 가족원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가정에서 행해지는 가사·육아·관리 등에 관한 육체적·정신적 노동이다(이기영 등, 1998b). 이러한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현대에 와서 여성의 시장노동으로의 진출, 가족구조와 가치관·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직장에서 남녀간의 역할공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성별 분업이 뚜렷하여 가사노동은 여성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속한 가정 모두에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기영 등, 1994b; 이기영 등, 1997; 조희금, 1998; 채옥희, 1995; Fox & Nickols, 1983; Rexroat & Shehan, 1987; Robinson, 1988; Sanik, 1981). 따라서 대부분의 취업주부는 다중 역할수행에 따른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역할갈등은 취업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기혼여성들이 겪는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행에 따른 이중책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최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즉 가정과 직장이라는 양립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가정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케 하는 재택근무에 종사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PC통신의 활성화 등 정보통신의 기술발달로 전통적인 일터인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가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보고서(1997)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연평균 5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재택근무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계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택근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가계가 주요 소득원을 잃게 되었을 경우 소득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공하여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무가 가계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이나 조기퇴직제 및 정리해고제를 내세워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의 통로를 제공하는 기제로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 대한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소수에 불과한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이론에 치우쳐 이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생활 영역 중 하나인 식생활 가사노동에 중점을 두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소비하는 시간량의 실태를 살

펴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특히 식생활의 가사노동에 초점을 둔 이유는 식생활은 가사노동 중에서 할애하는 시간량이 가장 많고, 또한 성별에 고정화된 영역으로 여성들이 거의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생활이나 주생활에 비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어 매일 행해져야 하는, 주부의 자율성이 가장 제약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가 가정일과 업무를 병행하는데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

1960년 중반 경제학자들의 시간연구에 자극을 받아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시간연구는 오늘날 가정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간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 측면에서의 연구와 가족이 시간을 어떤 활동에 어떻게 할당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가정생활의 질과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이나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한경미, 1989).

한국방송공사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6회에 걸쳐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5년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1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6시간 46분, 토요일 6시간 31분, 일요일 5시간 40분이었는데, 1995년의 경우 평일 5시간 36분, 토요일 5시간 22분, 그리고 일요일 4시간 6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1981년과 비교할 때 1995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1시간 10분, 토요일 1시간 9분, 일요일 1시간 34분 감소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공사, 1981, 1995). 가

정주부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영역은 요일에 관계없이 취사로 나타났는데 1995년의 경우 평일 2시간 10분, 토요일 2시간 1분, 일요일 1시간 43분을 할애하였다.

한편 가정학 분야에서 조사된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조사에 비해 가사노동의 분류가 체계적이고 다양해서 가사노동에 소비한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외숙 등, 2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는 큰 차이없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9시간 정도이었으나(강신주 등, 1968; 윤복자, 1975; 한경미, 1987)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평일의 경우 7시간 34분 정도를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일 2시간 25분, 휴일 1시간 56분으로 나타났다(이기영 등, 1996). 1980년과 1990년의 도시주부 시간사용을 조사한 임정빈 등(1992) 연구에서도 1980년에 11.8시간이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1990년에는 8.6시간으로 3시간 이상 감소하였으며, 1980년에 4.7시간이었던 평일 식생활관리시간도 1990년에는 2.9시간으로 약 2시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전업주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휴일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으로 인해 평일에 하지 못한 가사노동을 휴일에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일의 경우 1974년에 6시간 54분이었던 취업주부 가사노동시간은(윤복자, 1975), 1995년에는 3시간 20분(이기영 등, 1996)으로 3시간 30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가정 부부의 식생활관련 가사노동 수행실태를 비교한 이기영 등(1998a)의 연구에 의하면, 평일 식사준비 시간은 전업주부가 1시간 46분, 전일제 취업주부가 1시간 6분이었고, 설거지에 소비하는 시간은 전업주부가 39분, 전일제 취업주부가 21분이었다.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가

계소득, 아내의 고용시간, 아내의 교육수준, 아내의 연령, 성역할태도 등을 고려하여 왔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아내의 고용시간이 짧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기혼여성이가사노동에 많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등, 1994a; 이정수, 1984; 한경미, 1987, 1989, 1991; 차성란, 1998; 채옥희, 1995; 홍윤정, 1996; Abdel-Ghany & Nickols, 1983; Berardo et al., 1987; Dismukes & Abdel-Ghany, 1988; Rexroat & Shehan, 1987; Sanik, 1981; Schram & Hafstrom, 1986; Shelton, 1990; Stafford, 1983).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영역별 가사노동시간보다는 전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한 임정빈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식생활관리시간은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휴일의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7-12세인 경우 평일에 비해 식생활관리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주부의 학력이 고졸일 때 식생활관리시간이 가장 길고, 중졸, 대졸 이상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효정(1996)의 연구에서 주부의 식사관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부의 고용시간만이 유의했는데, 고용시간이 길수록 식사관리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차성란(1998)의 연구에 의하면 조력시간(유급의 파출부, 친정부모나 시부모, 남편을 제외한 기타 가족원으로부터 가사노동을 도움받은 시간)만이 서울거주 부인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가정 내의 노인 또는 장애인 유무, 그리고 편의품 이용 정도를 포함시켰는데, 가정 내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부는 이들 옆에서 식사의 시중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편의품은 가정에서의 식사준비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시간절약재화로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 재택근무의 연구 현황

1)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의 개념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home-based work, at-home income generation, flexiplace, work-at-home, piecework, homework, telecommuting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 재택노동, 원격근무, 가내근로, SOHO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김효정, 1999). 재택근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집에 회사와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해놓고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뉴에이스 국어사전, 1999)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송치방(1994)은 개념상 진정한 재택근무자는 집과 사무실 사이에 일을 전하기 위한 전자기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용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반드시 컴퓨터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Horvath(1986)는 소득을 창출하는 가사노동과 서로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을 재택근무로 보고 있다. 그리고 Pratt(1987)는 재택근무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hristensen(1988)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근무자의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특정유급의 노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과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박명희, 박미혜(1997)는 재택근무를 "가정 내에서 행하는 유급의 소득취득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는 이와 같은 재택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Horvath(1986)는 가정에서 그들의 주요 업무를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1990년도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소득차이를

연구한 김효정(1998)의 연구에서는 작업장소의 이동 수단에 따라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를 구분하였는데, 만약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재택근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행해진 재택근무에 관한 대규모 연구였던 NE-167 프로젝트에 의하면 “1년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6시간, 또는 계절적 노동인 경우 일년에 적어도 312시간을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으로부터 행하는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규정짓고 있다. 한편, 박미혜(1998)는 “가정 내 또는 가정의 인접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사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자택 또는 자택을 근거로 하여 소득창출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그리고 직장의 출퇴근을 통해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창출을 하는 자를 직장근무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재택근무와 가정생활

재택근무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재택근무자가 된 이유로 Carsky 등(1991)과 Heck(1992)은 재택근무가 자녀양육과 소득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재택근무는 부모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Costello(1988)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1) 가정에서의 역할과 소득창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고 2) 직접적인 관리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3) 식비, 교통비, 의복비, 탁아비의 절감을 가져오고 4) 자녀 및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동안에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 행해진 NE-167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통한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도 재택근무가 다른 취업자들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적고 자녀비용 및 의복구입 비용 등에 적게 지출함으로써 부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Stafford et al., 1992). 재택근무가 제공하는 장점으로는 융통성(40.7%), 가족돌보기(32.9%), 시간 절약(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점으로는 일을 떠날 수가 없다(21.3%), 가정의 일로 인해 작업이 방해 받는다(12.8%), 일과 가정이 상충된다(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hrentzen(1990), Beach(1989), Horvath(1986)는 아동양육 서비스의 이용이 여성재택근무자보다 남성재택근무자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는 여성근무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시간과 인적자원의 제한을 쉽게 보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Heck(1992)은 자녀가 재택근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8세 이하의 자녀의 존재는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시간을 1년간 407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자영재택근무자가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ritzmacher(1993)은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가족소득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 소득, 일상생활 통제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Heck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일을 제때에 마치기 위해 재택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시간관리전략들은 가족과의 공유시간 감소, 수면시간 감소, 외식 및 배달음식 이용, 청소시간의 감소, 가사조력자의 고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문숙재 등(1998)은 재택근무의 장점은 여성들이 시장에서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자녀를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며 또한 전업주부라는 위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퇴근없이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가족구성원이 주부자신을 재화를 벌어들이는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재택근무의 단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미혜(1998)의 연구에 의하면 재택근무자의 생활만족은 재택근무자의 개인/가계특성, 업무특성, 업무환경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며, 자녀양육이 재택근무의 큰 동기임을 밝혀냈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수준은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낮았으나 가족생활만족은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각각 얼마인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각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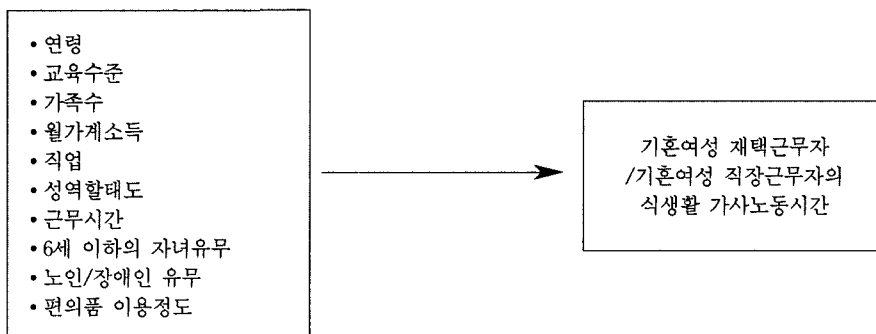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역할태도와 편의품 이용정도를 묻는 문항, 그리고 시간일지 기록표로 구성되었다. 각

각의 문항은 Stafford 등(1992), 문영표(1990), 박미혜(1998), 한경미(1991) 등의 여러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척도별 타당도는 전공자의 검사를 받았고 해당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월가계소득, 직업, 근무시간, 6세 이하의 자녀유무, 노인/장애인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성역할태도 척도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는 직업 또는 사회활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등 직업에 대한 여성의 태도, 가정 내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7개 문항의 합계점수가 적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그리고 합계점수가 많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81,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83으로 나타났다.

편의품 이용정도는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화의 구매 정도를 의미하며, 밀반찬류, 즉석반찬류, 통조림류, 냉동식품, 찌개거리, 상품화된 장류, 레토르트 식품, 외식, 배달서비스 등 9개 항목에 대해 '이용 안함' 1점, '년 1, 2회 이용' 2점, '월 1, 2회 이용' 3점, '주 1회 이용' 4점, '주 2회 이상 이용' 5점을 준 후 각각의 점수를 더하였다. 총점수가 많을수록 편



<그림 1> 연구모형

의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시간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일지 기록표를 이용하여 평일 중 하루, 토요일, 일요일의 3일간 생활시간의 기록을 조사하여 측정했으며,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는 식사준비, 식탁차리기, 식사 후 처리, 부엌가구 정리 등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 및 김해, 마산 등 경남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9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택근무자의 경우 놀이방 운영, 소매업 등은 임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번역이나 웹편집 등은 눈덩이표집(snow sampl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직장근무자는 재택근무자와 비교를 하기 위해 유사한 직업을 가진 근무자들을 임의표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여성 재택근무자 250부, 여성 직장근무자 500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여성 재택근무자는 242부, 여성 직장근무자는 49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배우자가 없는 기혼여성은 제외하여,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165부와 직장근무자 292부가 최종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성역할태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회귀분석에서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직업(비전문직=0, 전문직=1), 6세 이하의 자녀 유무(없음=0, 있음=1), 노인/장애인의 유무(없음=0, 있음=1)는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별로 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평균연령은 37.0세이며 30대가 69.1%로 가장 많았고,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균연령은 35.8세로 30대가 53.8%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직장근무자가 많이 표집되었다. 교육수준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46.7%, 직장근무자의 전문대졸 이상 비율이 23.6%로,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번역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방송모니터, 약사 등은 전문직으로, 소매업 운영자 및 판매점원 등은 비전문직으로 구분하였는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비슷하게 표집되었으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이 많이 표집되었다. 평균 가족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3.6명,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3.4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간의 요일별 평균근무시간을 살펴보면 평일과 토요일에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직장근무자의 근무시간이 많았으나, 일요일에는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직장근무자보다 많았다. 이는 직장근무자의 경우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대체로 명확한데 비해,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집단	기혼여성 재택 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 근무자(N=292)	변수	집단	기혼여성 재택 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 근무자(N=29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	20-29세	6(3.6)	67(22.9)	토요일 근무 시간	최소값	.00	.00
	30-39세	114(69.1)	157(53.8)		최대값	840.00	870.00
	40-49세	34(20.6)	58(19.9)		평균	252.73	345.12
	50세 이상	11(6.7)	10(3.4)		표준편차	191.90	192.22
	최소값	28.00	23.00		일요일 근무 시간	0분	112(67.9)
최대값	61.00	58.00	1-240분 미만	5(3.0)		2(.7)	
평균	37.02	35.76	240-360분 미만	12(7.3)		0(.0)	
표준편차	6.92	6.45	360-480분 미만	15(9.1)		6(2.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8(53.3)	223(76.4)	480-600분 미만		4(2.4)	0(.0)
직업	전문대졸 이상	77(46.7)	69(23.6)	600분 이상	17(10.3)	11(3.7)	
	비전문직	67(40.6)	142(48.7)	월가계 소득	최소값	0.00	0.00
전문직	98(59.4)	150(51.3)	최대값		840.00	870.00	
가족수	2명	12(7.3)	59(20.2)		평균	140.36	29.18
	3명	54(32.7)	104(35.6)		표준편차	225.62	158.59
	4명	91(55.2)	93(31.8)		100만원 이하	14(8.5)	12(4.1)
	5명 이상	8(4.8)	36(12.4)	101만-200만원 이하	46(27.9)	53(18.2)	
	최소값	2.00	2.00	201만-300만원 이하	82(49.7)	115(39.4)	
최대값	6.00	7.00	301만-400만원 이하	16(9.7)	73(25.0)		
평균	3.62	3.41	401만원 이상	7(4.2)	39(13.3)		
표준편차	.82	1.05	최소값	600,000	570,000		
평일 근무 시간	240분 미만	23(13.9)	1(.1)	최대값	5,000,000	7,500,000	
	240-360분 미만	80(48.5)	51(17.5)	평균	2,345,939.39	3,249,863.01	
	360-480분 미만	26(15.8)	5(1.8)	표준편차	912,231.85	1,287,942.55	
	480-600분 미만	19(11.5)	117(40.1)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없음	123(74.5)	262(89.7)
	600분 이상	17(10.3)	118(40.5)		있음	42(25.5)	30(10.3)
최소값	120.00	98.00	노인/장애인 의 유무	없음	154(93.3)	261(89.4)	
최대값	840.00	98.00		있음	11(6.7)	31(10.6)	
평균	338.91	548.02	성역할 태도	최소값	29.00	21.00	
표준편차	151.39	146.76		최대값	61.00	62.00	
토요일 근무 시간	0분	39(23.6)		28(9.6)	평균	45.53	42.29
	1-240분 미만	22(13.3)	20(6.8)	표준편차	8.34	10.13	
	240-360분 미만	61(37.0)	109(37.3)	편의품 이용 정도	최소값	13.00	9.00
	360-480분 미만	22(13.3)	81(27.8)		최대값	34.00	41.00
	480-600분 미만	4(2.5)	22(7.5)		평균	23.47	22.65
600분 이상	17(10.3)	32(11.0)	표준편차		4.90	5.82	

월평균 가계소득은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월가계 소득은 재택근무자에 비해 1,000,000원 정도 많았다. 재택근무자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아서 재택근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자녀양육

과 소득창출로 나타났던 선행연구(문숙재 등, 1998; Carsky, 1991; Heck, 1992)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재택근무자에 비해 직장근무자의 가정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태도의 평균값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42.3, 재택근무자가 45.5로,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편의식품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가 식생활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요일별로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은 203.52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 평일(181.09분), 토요일(170.67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는 일요일 178.36분, 토요일 132.96분, 평일 119.33분으로 재택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즉 두 집단에 있어서 평일보다는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생활이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매일 수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취업 기혼여성들이 평일에는 편의식품을 많이 이용하거나, 가사조력자나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휴일에는 작업노동시간의 감소로 가사노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주부가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자녀를 위해 간식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두 집단에 대한 t 검정 결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택근무를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직장근무자에 비해 많고 또한 근무시

간의 융통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에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직장근무자에 비해 더 많은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3. 평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표 3>은 평일의 식생활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석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직업으로, 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비전문직종사자보다는 전문직종사자가 식생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한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는 연령과 직업이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이었다. 즉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연령이 많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식생활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 있어 직업의 영향력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직 재택근무자가 비전문직 재택근무자에 비해 식생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고용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시간가용성(time availability) 가설에 의하면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사노동에의 시간할애는 적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평일 근무시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직 재택근무자는 367.16분, 그리고 전문직 재택근무자는 319.59분으로 전문직종사자에 비해 비전문직종사자의 평일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들이 가사노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서 비

<표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

(단위: 분)

구 분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	t-value
평일	181.091	119.332	6.83***
토요일	170.667	132.962	3.71***
일요일	203.515	178.363	2.13*

*p<.05 ***p<.001

〈표 3〉 평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 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n=292)		
	b	β	t-value	b	β	t-value
연령	.428	.028	.341	2.474	.245	3.358***
교육수준 ^{a)}	-29.433	-.140	-1.278	-8.378	-.055	-.783
가족수	26.700	.208	1.720	7.812	.126	1.750
월가계소득	-1.392E-06	-.120	-1.271	1.068E-06	.053	.965
직업 ^{a)}	93.832	.438	3.793***	-36.870	-.284	-4.098***
성역할태도	-1.439	-.114	-1.278	-.377	-.059	-.824
평일 근무시간	-.076	-.109	-1.348	-.041	-.093	-1.319
6세 이하의 자녀유무 ^{a)}	19.121	.079	.861	17.457	.082	1.267
노인/장애인 유무 ^{a)}	18.534	.044	.452	-6.572	-.031	-.510
편의품 이용정도	-1.256	-.058	-.696	-1.287	-.115	-1.808
상수		146.300			88.107	
Adjusted R ²		.253			.167	
F		5.207***			6.854***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전문직 직장근무자는 전문직 직장근무자에 비해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많았는데, 비록 평일 근무시간의 평균을 비교해보았을 때 재택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직장근무자의 평일 근무시간이 510.20분으로, 비전문직 직장근무자의 평일 근무시간인 587.97분에 비해 짧았지만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월가계소득이 비전문직종사자에 비해 많아 취업여성이 직접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을 수행하기보다는 가사조력자를 고용하거나, 가정기구나 편의품을 이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을 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4. 토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표 4〉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토요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가족수와 직업으로, 1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가족원의 수가 많거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토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가 식생활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한경미, 1989, 1991: Coverman, 1985), 가족수가 많아지면 가사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수행되어야 할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시간소비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토요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수준, 직업, 성역할태도,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노인/장애인의 유무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이었다. 즉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가정 내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직장근무자는 토요일에 식생활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과의 부적인 관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져서 가사노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Evenson, 1983),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시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

<표 4> 토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 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n=292)		
	b	β	t-value	b	β	t-value
연령	.409	.025	.285	4.441	.322	5.184
교육수준 ^{a)}	-8.699	-.039	-.338	-44.854	-.215	-3.468***
가족수	47.785	.350	2.561*	10.685	.127	2.025*
월가계소득	3.319E-06	.027	.271	1.520E-06	.055	1.160
직업 ^{a)}	76.719	.337	2.709**	-79.840	-.450	-7.546***
성역할태도	-1.174	-.087	-.915	-1.328	-.151	-2.706**
토요일 근무시간	.056	.095	.903	-.226	-.490	-9.705
6세 이하의 자녀유무 ^{a)}	29.143	.114	1.194	39.248	.134	2.409*
노인/장애인 유무 ^{a)}	-52.017	-.116	-1.009	38.925	.135	2.561*
편의품 이용정도	3.551	.155	1.678	-1.054	-.069	-1.353
상수		-122.993			142.419	
Adjusted R ²		.157			.384	
F		4.046***			19.166***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날수록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 가사노동을 주부가 스스로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여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취업여성에게 비해 이에 대한 시간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5.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표 5> 일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

변 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n=292)		
	b	β	t-value	b	β	t-value
연령	2.245	.123	1.475	3.991	.227	3.530***
교육수준 ^{a)}	-5.678	-.023	-.204	-22.634	-.085	-1.368
가족수	34.612	.226	2.011*	42.156	.391	6.093***
월가계소득	-1.920E-05	-.139	-1.615	-1.300E-06	-.037	-.757
직업 ^{a)}	115.786	.454	3.314**	-76.483	-.338	-5.667***
성역할태도	-.017	.001	-.014	-2.020	-.180	-3.109**
일요일 근무시간	-.112	-.201	-1.861	-.143	-.200	-4.075***
6세 이하의 자녀유무 ^{a)}	4.914	.017	.205	-20.429	-.055	-.954
노인/장애인 유무 ^{a)}	16.969	.034	.326	-13.303	-.036	-.665
편의품 이용정도	-5.678	-.208	-2.640**	-2.682	-.138	-2.603**
상수		107.941			95.707	
Adjusted R ²		.340			.340	
F		9.463***			15.979***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직업, 편의품 이용정도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이었다. 즉 가족수가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편의품을 적게 이용하는 경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일요일에 할애하는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편의품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편의품이 가정에서의 식사준비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시간절약재화이므로 편의품을 많이 이용할수록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족수, 직업, 성역할태도, 일요일의 근무시간, 편의품 이용정도로 이들은 3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근무자의 연령과 가족수가 많고, 비전문직종사자이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요일의 근무시간이 짧으며, 편의품을 적게 이용하는 경우 일요일에 식생활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가용설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직장근무자의 경우 일요일의 근무시간이 평일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업노동시간이 감소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절대 시간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생활 영역 중 하나인 식생활에 중점을 두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혼여성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의 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부산 및 경남지역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165명과 직장근무자 292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으며, 빈도분석, t 검정, Pearson 상관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일별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모두 평일보다는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에 대한 t 검정 결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유의하게 많았다.

둘째,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평일에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직업,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는 연령과 직업이었다. 토요일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가족수와 직업이,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는 교육수준, 직업, 성역할태도,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노인/장애인의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요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직업, 편의품 이용정도이었으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일요일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가족수, 직업, 성역할태도, 일요일의 근무시간, 편의품 이용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휴일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직장근무자의 경우 그 시간량의 증가는 매우 많았으나, 재택근무자의 경우 증가량은 별로 크지 않아 요일에 관계없이 비슷한 시간을 식생활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재택근무가 가사책임과 자녀양육 부담을 갖는 기혼여성에게 고정된 노동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탄력적인 노동시간의 이용을 통해 가정과 일터의 조합을 가능케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소득을 얻는 일과 가사노동을 함께 하게 되므로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직업적인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언제든지 가족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가사노동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직장근무자에 비해 남편이나 다른 가족구

성원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서 더 많은 역할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가사노동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중 역할수행에서 오는 시간제약이나 시간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부 자신의 불만족과 전체 가족원의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경험하게 될 역할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와 가사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계획성있게 업무와 가사를 처리하는 등의 시간관리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남편이나 가족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우선 재택근무를 단지 부업정도로만 인식하여 가사노동의 분담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의 취업형태로 인식하도록 하고 또한 가사노동은 더 이상 주부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원 공동의 책임이며 노동력의 재생산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노동임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반되게 나타나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비전문직종사자에 비해 전문직종사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반면, 직장근무자의 경우 전문직종사자에 비해 비전문직종사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내에서 직업을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나누어서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변수를 각각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기혼남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간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고, 식생활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련변인의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신주, 서영숙, 최보가(1968). 생활시간관리의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133-141.

김외숙, 조희금, 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김효정(1996). 미국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4(3), 76-87.

김효정(1998). A study for the effect of sex on choice of occupation and work location and on earnings: Comparison of on-site workers with home-based workers in the U.S.. 대한가정학회지, 36(7), 123-141.

김효정(1999). 재택근무의 고찰 및 가정학의 과제. 인문사회과학논총, 6(1), 109-123.

뉴에이스 국어사전(1999). 금성출판사.

문숙재, 김은희, 이석경, 제민정(1998). SOHO직이 가사노동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51-165.

문영표(1990).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명희, 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14.

박미혜(1998).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특성에 따른 관리행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치방(1994).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성격특성 비교: 사회성, 피드백, 자율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복자(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151-169.

이기영, 김외숙, 서창원, 이승미(1994a).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이기영, 이승미(1994b).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7). 한일 양국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97-108.
- 이기영, 김외숙, 윤미립(1998a). 한일 양국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의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05-118.
- 이기영, 조영희, 송혜림, 이승미(1998b). 생활설계론. 교문사.
-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2-132.
- 임정빈,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262-278.
- 정보통신부(1997).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9.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채옥희(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8-98.
- 한경미(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방송공사(1981, 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del-Ghany, M., & Nickols, S. Y. (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59-167.
- Ahrentzen, S. B. (1990). Managing conflict by managing boundaries: How professional homemakers cope with multiple roles at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22, 723-752.
- Beach, B. (1989). *Integrating Work and Family Lif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erardo, D. H., Shehan, C. L., & Leslie, G. R. (1987). A residue of tradition: Jobs, careers,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81-390.
- Carsky, M. L., Dolan, E. M., & Free, R. K. (1991). An integrated model of homebased work effects on family quality of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3, 27-49.
- Christensen, K. E. (1988).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 Costello, C. B. (1988). Clerical home-based work: A case study of work and family. In K. E. Christensen(Ed.).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Dismukes, D. L., & Abdel-Ghany, M. (1988). Homemakers' household-work time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247-256.
- Evenson, R. E. (1983).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havior Science Research*, 12, 196-215.
- Fox, K. D., & Nickols, S. Y. (1983). The time crunch: Wife's employment and family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4, 61-82.
- Gritzmacher, J. E. (1993). Satisfaction with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2), 141-161.

- Heck, R. K. (1992). The effects of children on the major dimensions of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315-346.
- Heck, R. K., Winter, M., & Stafford, K. (1992).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187-212.
- Horvath, F. W. (1986). Work at home: Finding from CPS. *Monthly Labor Review*, 109(11), 31-35.
- Pratt, J. H. (1987). Methodological problems in surveying the home-based workfor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1, 49-60.
-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37-750.
- Robinson, J. P. (1988). Who's doing the housework? *American Demographics*, December, 24-27.
- Sanik, N. M. (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A decade comparison-1976-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175-180.
- Schram, V. R., & Hafstrom, J. L. (1986). Family resource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235-245.
- Shelton, B. A. (1990).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 Stafford, K. (1983).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257-266.
- Stafford, K., Winter, M., Duncan, K., & Genalo, M. A. (1992). Studying at-home income generation: Issues and metho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39-158.